

# 함평군-센트럴투자개발 투자협약 체결



빛그린국가산단 인근 함평군 월야영월지구에 오는 2025년까지 1천280억 원이 투입된다. 함평군은 12일 군청 군수실에서 센트럴투자개발(주)과 투자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월야 영월지구에 공동주택건설 등 총 1천2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심동남 센트럴투자개발(주) 대표이사 등 양측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역건설회사의 참여와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구매,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

## 월야 영월지구에 2025년까지 1280억 투자 빛그린산단 조성 맞춰 주거배후단지 조성

을 심 대표이사에게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등이 겹치는 어려운 시기에 1천억 원이 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번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군에서도 각종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월야 영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빛그린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함평군이 추진하는 주거배후단지 조성 사업이다. 군은 산단 조성 이후 공장 근로자 등의 인구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주거 수요 급증에 대비한 주거배후단지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사업은 산단 인근 월야면 영월리 일원 1만 1천평 부지(36,772.39㎡)에 공동주택 7개동(573세대), 근린생활시설 3개동 건립을 주요 골자로 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함평군은 디지털정보대전, 자동차산업, 광산업, 첨단산업 등을 빛그린 산단 내 우선 유치 업종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군 자체적으로 임직보조금의 10%(2억 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전남도와와의 협의를 통해 전남도 임직보조금 지원 대상에도 빛그린산단을 확대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 영암군, 수해피해 구례군에 온정의 손길

### 구호물품 생수 300박스와 라면 100박스 전달

영암군이 기록적인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례군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영암군은 지난 12일, 폭우 피해 지역인 구례군에 구호물품으로 생수 300박스와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또한, 영암군 의용소방대원들이 구례군을 방문해 긴급수해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 11일에 이어 연이틀동안 영암군 의용소방대 회원 80여명이 피해현장에서 토사제

거, 생활폐기물 처리, 물에 젖은 가재도구 정리 등 활발한 수해복구활동을 펼쳤다. 한편, 영암군 체육회 임직원 15여명은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곡성군 수해피해 현장인 곡성문화체육센터에 찾아 복구작업에 힘을 보탰다. 영암군 관계자는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시름에 잠긴 구례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호물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목포시, 미항 회복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총력

목포시가 미항 목포의 회복을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에 비지땀을 쏟았다.

목포 앞바다는 폭우로 영산강을 따라 흘러내려온 해양쓰레기로 가득차 몸살을 앓고 있다.

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선박 등을 동원하고, 군부대 장병 등 인력을 투입해 수거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쓰레기양이 방대해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수거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시민과 함께 미항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

13일 김종식 목포시장과 코로나 대응을 제외한 공무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우총연맹 등 사회단체, 23개동 자생조직 회원 등 550여명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참여자들은 평화광장 일원, 갯바위 해상보행교 일원, 남농로 인근(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문화예술회관) 등 3개 구간으로 배치돼 해안가에 쌓인 마대자루(80kg) 500개 분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 신안군 반월도·박지도 명실상부한 '퍼플섬'으로 거듭나다

### "아름다운 바다와 갯벌 그리고 퍼플교, 언택트 관광지 각광"

신안군은 8월 12일 안좌면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군의회 의장과 함께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월도·박지도를 퍼플섬으로 선포했다.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이면서 동시에 행정안전부 2020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으로 선정된 안좌면 반월도·박지도는 지금까지 88억원을 들여 보라색을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 퍼플섬을 조성했다.

섬에 자생하는 보라색 도라지 군락지와 꿀풀 등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라색 섬으로 컨셉을 정하고 목교와 마을 지붕, 작

은 창고의 벽, 앞치마와 식기 및 커피잔까지 보라색으로 섬 속의 섬에 생동감을 더했다.

행안부가 꼽은 걷기 좋은 곳 퍼플섬은 '문 브릿지(Moon Bridge)'를 통해 반월도, 퍼플교, 박지도까지 7.6km에 달하는 해안산책로를 따라 박지산 4.4km를 걸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어 명실상부 서남권 최고의 트레킹코스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섬 입구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두 바퀴로 달려도 좋다.

퍼플교의 보라색 조명은 야간에 바닷물과 만나면 야간 조명의

끝관왕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운 선사해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주기도 한다.

해안 산책로를 걷다 보면 라벤더·자목련·수국 등 보랏빛 꽃들이 조성되어 대한민국 최초 섬 자체를 컬러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를 피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언택트 관광지이면서, 갯벌의 빼어난 해양경관과 바람도 쉬어갈 것 같은 보라색의 향연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치유의 퍼플섬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목포시, 의료계 집단 휴진 대비 비상체제 가동

목포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14일 집단휴진(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7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윤창 목포시사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시는 지역 의료계와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협의하는 한편 지난

10일 전라남도 명의로 163개 의료기관에 휴진일 진료를 촉구하는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공문을 발송했고, 12일에는 도청 홈페이지에 진료명령을 공고 했다.

휴진 예정일에 진료가 가능한 비상진료기관은 종합병원 5개소, 병원 24개소, 요양병원 8개소이며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6개소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김정환 기자

## 무안군,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무안군은 여름철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패혈증에 감염되면 갑작스러운 발열, 오한, 전신 쇠약감이 나타나

며 구토와 설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다리에 발진, 부종 등 피부병변이 나타나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 코로나19 극복

#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